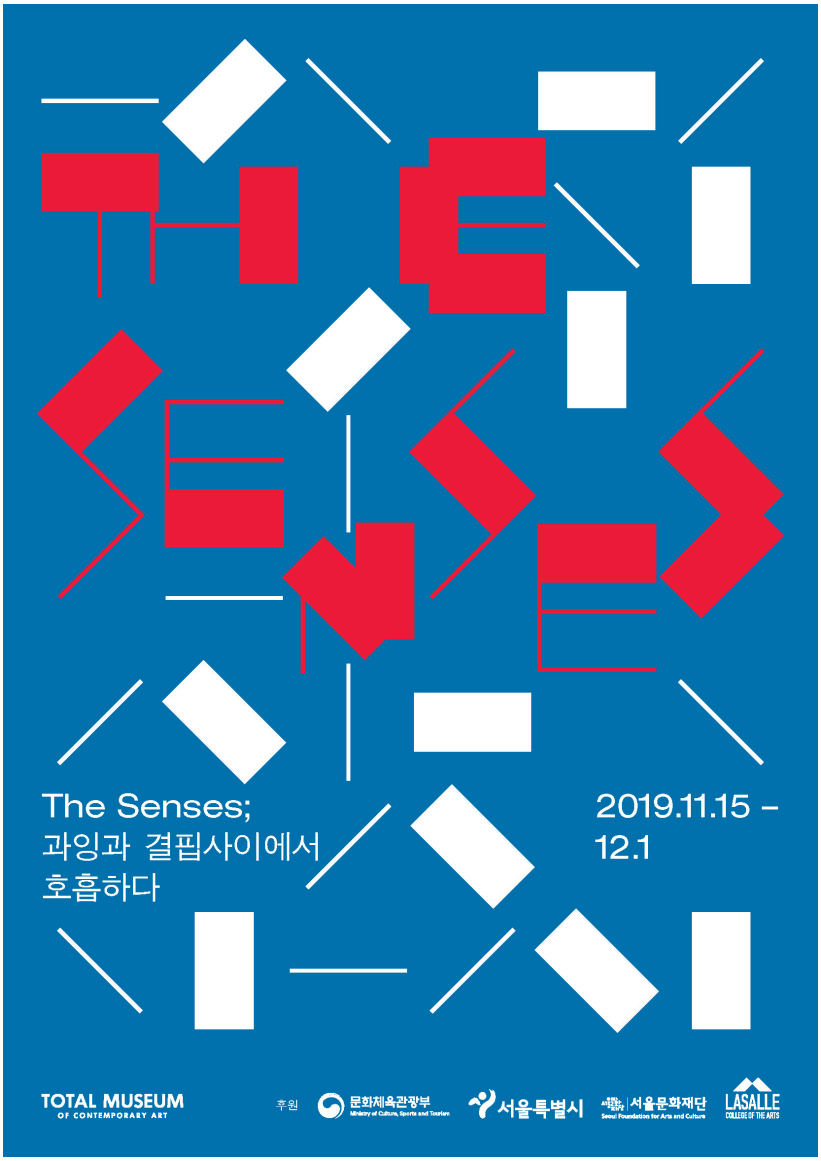
TOT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전시보도자료



The Senses;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호흡하다

2019. 11. 15 – 12. 1
토탈미술관

1. 전시 개요

전시제목: The Senses;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호흡하다

전시기간: 2019. 11. 15 - 2019. 12. 1

* 전시오프닝: 2019. 11. 15 (금요일) 오후 6 - 8시

(관람시간: 화~일요일 오전 11시-오후 6시,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토탈미술관

(서울시 종로구 평창 32길8, T. 02-379-7037)

전시기획: 이승아 (토탈미술관 객원 큐레이터)

참여작가: 강승희 (설치), 김기라x김형규 (비디오/설치), 김지민 (조각/설치), 노세환 (비디오/사진), 안옥현 (비디오/퍼포먼스), 윤보현 (사운드/설치), 이준 (인터랙티브/설치), 전명은 (사진), 최수앙 (조각/설치), 애들리안 쿠에 Adeline Kueh (설치/퍼포먼스), 첸 사이 후아 콴 Chen Sai Hua Kuan (사운드/설치), 이잠 라만 Ezzam Rahman (비디오/설치), 유릭 라우 Urich Lau (비디오/설치)

(국내 작가 9팀 10인, 해외 작가 4인, 총 13팀 14인)

전시문의: 이승아 (전시 큐레이터) m. 010 5448 6348

주은정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m. 010 5013 3095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라살예술대학교(Lasalle College of The Arts)

2. 전시 소개

전시 <The Senses;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호흡하다>는 2020년 한국-싱가포르 수교 45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국제 네트워크 전시이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역사적으로 식민지로부터 독립 후,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성취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전시 <The Senses;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호흡하다>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대부분 전후 세대로 식민지 경험이 전무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사회 경제적 발전의 변화 양상 속에서 경험한 '다른 감각'을 보여준다. 21세기에 미술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이 세대 작가들의 특징은 예술이 점차적으로 과학화, 개념화, 이론화 되어가는 오늘날의 미술계 상황을 배경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비슷한 연령대로 이루어진 전시 참여작가들은 이론과 기술, 과학을 작품 안에 적극 포용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통매체인 감각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자본과 권력, 기술, 사회 제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석과 사유의 이미지를 구현한다.**

2019-2020 한국-싱가포르 국제기획전, <The Senses; 과잉과 결핍 사이에서 호흡하다>는 기술 문화의 급격한 발전을 목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정보, 자본, 환경, 도시에서 초래된 '과잉'과 '결핍'을 경험해왔고, 체감한 경험을 토대로 조각, 사진,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작업하는 한국 미술가 10인(8명+1팀), 싱가포르 미술가 4인의 작품을 소개한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다양한 매체들이 생활 깊숙이 파고 들어 우리의 감정, 사고 및 객관적인 정보는 이들 매체 없이는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고 깊숙이 스며든 오늘날의 다양한 소통 매체들 덕분에 객관적, 주관적 차원의 소통과 소통 관계가 충분할 뿐 아니라 강화되었는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더 빠른 속도로 소통할 수 있게 된 지금, 과연 인간의 감각과 지성의 지평은 더욱 넓어졌고 그 소통 역시 더욱 확대되었는가? 전시 <The Sense; 과잉과 결핍사이에서 호흡하다>는 바로 이 질문을 미술 작품을 통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번 전시는 인간의 감각을 사유하고 새롭게 경험, 지각하는 작품들을 통해 예술의 본질과 성격을 집중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작가 개개인의 감각에 대한 사유뿐 아니라 서로 다른 매체와 문화권에서 감각이 어떻게 해석되고 감각 경험이 매개되는지를 조망할 수 있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매체와 정보의 일방향적 쇄도 속에서 무뎌지고 잃어버린 감각을 다시금 경험하고 사유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3. 전시 기획의 글

The Senses; 과잉과 결핍사이에서 호흡하다

이승아 (문화연구)

오늘날 급변하는 기술의 발달은 여러 형태로 인간의 감각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 산업과 더불어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증강현실(Augment Reality), 햅틱(Haptic)기술 등 감각을 자극하고 나아가 한층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세상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소통이 가능한 미디어 도구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되고 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을 다른 생명체들과 구분 짓는 특징 중 하나로 이와 같은 미디어의 지속적인 사용을 들 수 있다. 현실의 기술능력은 디지털이라는 방대한 정보수단의 매개체를 기반으로 더욱 빠르게 진화중이다. 그 결과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 혹은 객관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도구 없는 생활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마셜 매클루언Herbert Marshall McLuhan이 수십 년 전에 예언한 몸의 확장, 감각의 확장으로서의 미디어 개념은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한 추상화와 함축화의 과정 등을 거치면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미디어 도구들을 낳았다. 이를 통해 실용적인 정보뿐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며 여러 방식으로 소통, 구현되고 있다. 이처럼 종류와 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오늘날의 미디어 콘텐츠는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왔을 뿐 아니라 폭넓게 확산되어 우리 사회를 통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처럼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미디어가 운용되는 방식이 인간 사이에서 객관적, 주관적인 다양한 소통을 도모하고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충분한지 궁금하다. 일방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을 나열하거나 기억 속의 무작위적 편집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뱉어내는 데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닐까?

프랑스 철학자 폴 비릴리오Paul Virilio는 『소멸의 미학』을 통해서 과학기술 문명시대에 세상을 움직이는 정치, 사회, 문화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각 촉수는 점점 무뎌진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감각 자체가 무뎌짐에 따라 '기억부재'의 현상, 즉 '피크노렙시(Picnolepsis)' 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피크노렙시'는 그러한 기억의부재 중에 뜻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는 것처럼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경험이지만 그것이 뚜렷이 의식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종의 '기억부재증'을 일컫는다. 비릴리오는 이러한 현상이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여러 정보들의 가속도로 인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결국은 소멸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며, 때문에 새로운 사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물론 인간은 지금처럼 빠른 속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세상 혹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반응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견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진, 영상, 텍스트 등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해 부단히 '기록' 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소통과 관계 맺기를 시도하는 본능적인 행위로도 볼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위적인 편집, 끊임없는 업로딩과 수많은 찰나의 기록들은 언젠가 매체들이 소멸하게 되는 순간 함께 사라질 수 있으며, 사라지는 순간 '피크노렙시'와 같은 기억부재증의 저편으로 날아갈 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시간과 속도의 소멸성에 대한 꾸준한 정치, 사회, 역사적인 고찰과 부단한 사유의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기술문명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인간은 끊임없이 몸의 감각을 통해 세계와 상호작용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을 터득해 왔다. 오감을 연구한 많은 역사적 문헌들이 존재하며 현재 다양한 감각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고 결합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감각은 역사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되어왔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선원근법에 의해 시각이 우위를 차지했고, 중세에는 청각과 촉각이 보다 가치 있게 여겨지기도 했으며, 현실에서는 두 개 이상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혼합, 혹은 하이브리드 미디어를 통해 접촉, 텍스처, 윤곽선, 운동감각적인 움직임, 혹은 빠른 정보들의 속도로 인해 일어나는 긴장의 감각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듯 미디어 포화상태인 환경 속에서 우리의 감각은 과잉, 포화 상태의 감각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끊임없이 경험하는 동시에 진화하고 있다.

<The Sense; 과잉과 결핍사이에서 호흡하다> 전에 참여한 작가들은 다양한 감각의 변환과 확장을 시도한다. 이들은 단지 소통과 관계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감각의 세계를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통로로서 감각과 지각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한다. 기술문명사회가 가속을 통해 인간과 사물의 시공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면, 이번 전시는 실제 세계에서 감각들을 경험하고 '재사유'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쏟아지는 정보에서 벗어나 체험을 통해 잃어버렸던 경험 감각들을 떠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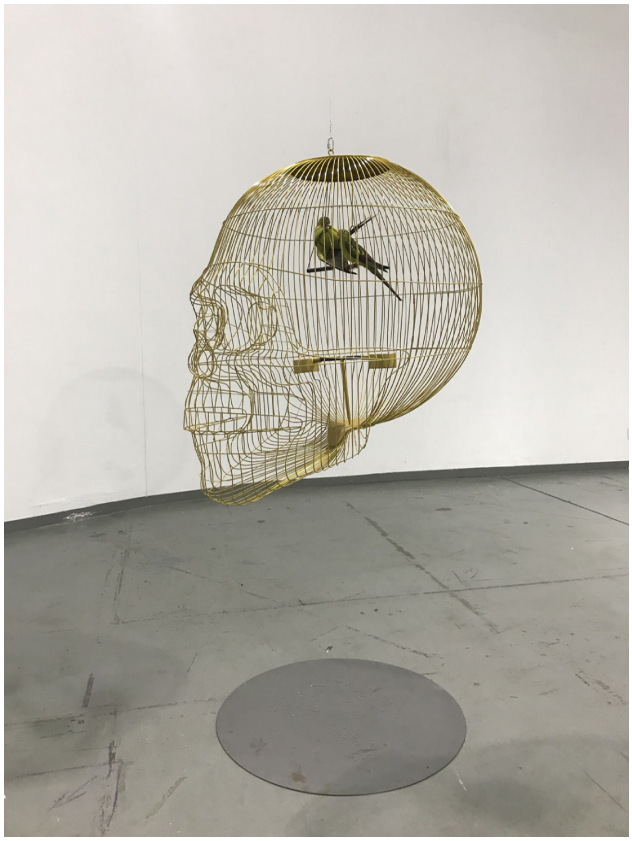
3. 전시 작품 이미지

강승희, <인지된 레벨 Cognitive Leve>

2019, mixed media,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김기라 x 김형규, <장님_서로 다른 길_표준화된 시점>

2018, 4K video installation, 10min 30sec



김지민, <Insideout>

2018, stainless steel, stuffed parrot, 90x125x100cm

노세환, <백지장을 맞들면>

2019, video, 3min 37sec

안옥현, <사랑에는 이름이 없다 Love Has No Name>

2018, single channel video, approx. 13 min

윤보현, <Glassorganism>

2013-15, glass, video, spotlight, dimensions variable

이준, <입의 향연>

2019, interactive media installation based on data visualization, 90x180x80cm

전명은, <Je regarde - Adélaïde I 나는 본다 – 아델라이드 I>

2010, archival pigment print, wood frame, 105x70cm

최수앙, <Under the Skin>

2019, oil on resin mixed with pigment 25.5x36.5x82cm

애들린 쿠에 Adeline Kueh, <Whisper (100 ways to remember you) 속삭임 (당신을 기억하는 100 가지 방법)>

2014, wall paint, lavender talc, wall light fixture from Lavenda Spa, dimensions variable

첸 사이 화 콴 Chen Sai Hua Kuan, <Sound of the Earth Singapore 땅의 소리 싱가포르>

2015, soil, water, copper wire, vibrator, zine, brass, ceramic bowls, dimensions variable

이잠 라만 Ezzam Rahman, <he's been bruised by a man who can't love

그는 사랑할 수 없는 한 남성으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2019, artist's skin and nails, adhesive, threaded wire, epoxy resin, digital print in glass canisters / performance for photography, 29x21x10cm (a series of 5 canisters)

유릭 라우 Urich Lau, <Spy Ball>

2018, video installation with Spy Ball (11 CCTV surveillance cameras & sepak takraw rattan ball), surveillance digital video recorder, video, cables, dimensions variable